'체조 사랑' 한마음…체전 5연패 합작

전국 최강 광주체고 체조 이끈

최기동·임영순 부부

최기동-임영순 부부가 올 시즌을 정리하는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후 교정에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며 오랜만에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스포츠 포커스

"최 선생님 축하합니다. 좀 웃으세요. 은경이 복이 전광왕은 없나보지!"

최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체조 세부경기가 끝난 영광군체육관에서 박은경(광주체고 2년)이 전국체전 사상 첫 5관왕이 확정되자 임영순(여·48·운암중 교사)씨가 남편 최기동(49) 광주체고 여고부 체조 감독에게 축하인사를 건냈다.

"아! 평행봉에서 어떻게 그런 착지를 할 수 가 있지. 생전 안하던 착지 실수를 다 하네…" 제자의 전광왕이 깨진것에 대한 아쉬움을 못내 삭히지 못한 최 감독은 아내의 축하인사에도 10여분을 서성이며 전관왕이 되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여고부 단체, 부인이 먼저 2연패 '지휘'

남편이 이어 3연패…'부부의 힘' 과시

'박은경 대회 첫 5관왕' 대기록도 제조

"하여간 무슨 욕심이 저리 많은지…. 이제 자신의 건강도 좀 챙기지" 남편의 무한한 제자사랑에 서운했는지 아내인 임 선생이 관절염으로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체조장에 나온 남편에 대한 질책 아닌 질책을 해댄다.

최기동 감독의 체조사랑은 광주체고 여고부 체조가 전국체전 사상 전무후무한 단체전 5연패의 위업을 쌓은 밑거름이 됐고, 전국 최강의 광주 체조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다.

특히'체조에 미친 사나이'로 통하는 최 감독의 뒤에는 아내 임영순 교사의 내조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광주체고 여고부 체조 5연패도 부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아내 임영순 씨가 지난 2004~2005년 2년간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단체전 2연패를 일궜고, 남편 최기동감독이 아내의 뒤를 이어 지난 2006~2008년까지 3연패를 이뤄 '5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다. 체조계에서도 이같은 이색적인 5연패에 대해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체조계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최 감독은 수창초등 시절 '신동'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다재다능한 자신의 재능을 체조에 올인하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한 선수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는 1976년 조선대학교 여자 중학교 코치로 부임하면서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펼쳤다.

선수시절 최선을 다하지 못한 후회스러움을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는 '먼저 나오고 늦게 들어가야 한다'는 지도 철학을 실천하며 훈련에 집중하도록 가르켰다. 선수들에게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서 체조에 미쳐가자 선수들도 그의 체조사랑에 같이 동화돼 갔다.

지금도 광주체육고 최감독 방에는 한켠에 침대가 있다. 선수들과 조금이라도 더 같이 호흡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의 체조에 대한 열정은 1999년 제28회 소년체전에서부터 2005년 34회 소년체전까지 금40개, 은 22개, 동 28개를 획득했으며 전국규모대회 금 150개, 은 80개, 동 70개를 획득하는 등 '우승 제조기'가 된다.

특히 그는 제26회 애틀랜타올림픽 은, 아시안게임 2연패,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을 획득한 한국체조계의 간판스타 여홍철을 초등시절 발굴해 키워내는등 지도자로서 역량을 국내·외 체조계에 떨치게 된다.

또한 1999년 제28회 소년체전에서 광주·전남 체조 역대 사상 최초 초등부 단체종합우승을 시작으로 개인2관왕 3명, 2000년 제29회 소년체전 개인 4관왕, 2002년 남여 중등부 단체종합 2연패, 여자동일 종목 개인 3연패, 2003년 여자 중등부 단체종합 소년체전 3연패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승 금자탑을 쌓아오며 비 인기 종목인 광주체조를 전국최강에 올려 놨다.

최 감독의 화려한 이력의 절반은 아내 임영순교사의 몫이다.

전북 기전여중 시절 광주 중앙여고로 스카우트 된 임 교사는 고2때 최감독과 사제지간으로 인연을 맺은 후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된다. 당시 조선대학교 체조부 1학년이었던 최 감독이 임영순 교사가 있던 중앙여고 코치를 겸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1986년 한이불을 덮고 지내는 '체조 커플'이 됐다. 임 교사는 전남대학교-전남도청을 거쳐 1987년 광주체중 감독을 시작으로 광주체중과 광주체고에서 17년간 감독을 맡으면서 남편 최기동감독과 광주 체조의 든든한 동량들을 키워냈다. 지금은 선수를 키워내는 감독직이 아닌 일반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임 교사의 맘은 항상 체조장에 있다.

"최 선생님이 다 하셨지요. 저와 함께 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라며 남편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임 교사는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좀 돌봐야 하는데"라며 남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서 건강을 챙긴다.

임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워내는데도 남편 최 감독과 함께 했지만 최 감독이 학교에서 숙식을 하는 등 가정보다는 체조에 미쳐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단 한번도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자신도 체조인이면서 몇해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지도했기 때문이다.

임 교사는 "아이들에게 체조기술을 가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첫째입니다. 저나 최 선생님이 이만큼 좋은 재목을 키워낸 것도 인성교육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부의 지도철학이 '바른 인성 키우기'에 있었음을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기동 감독이 광주체고 체조 여고부 선수들의 자세를 교정해 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써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김가네깐풍기&찜닭
남구 봉선동 봉선초교 정문 앞
48시간 숙성,발효 시킨 웰빙식품
☎(062)651-9288

종근당건강호남총판
북구 우산동 우미프라자1층 상가
세계최초 특허제품홍보 남.여 주부사원 모집
영업,관리,부업 남.여25세이상 고소득희망자
☎(062)266-7753

소라음악학원
북구 두암동 농협 3거리 덕산맨션 건너편
유아,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입시반,취미반
수행평가, 바이올린, 비올라 원생 수시모집
☎(062)523-4763

굽네치킨
서구 화정3동 염주초교 e편한세상@ 후문 앞
후라이드치킨,양념치킨 신속배달
☎(062)384-9288

짚가연
북구 오치동31시단 맞은편 삼일맨션정문 앞
짚불삼겹살, 통삼겹살, 생삼겹살(짚불로구운 그윽한맛과향)
양념갈비, 항정살, 버섯모듬, 김치찌게
☎(062)266-9192

한양길또순이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옻닭,토종닭,토끼탕,메기탕,흑염소주문예약
단체손님환영
☎(061)383-2756

그레이스양복점
서구 상무지구 CGV빌딩 프리미엄아울렛B/D
명품스타일 맞춤정장
대표 전 창 호
☎(062)383-8887

광동기술(주)
남구 백운동 정재환내과 맞은편 2층
측량도시계획,형질변경인허가업무,설계용역,CAP/GIS,데이터구축
대표 오 정 호
☎(062)673-1343

대한활인도협회
동구 대인동 소방서뒤 대인시장 입구
신무예,근골격,대체의학연구,철학,프로무술,정체운동 회원수시모집
☎(062)233-6788

무한정감자탕
동구 학1동 학강초등학교 건너 남광주시장
감자탕전문 단체손님 환영
대표 김 진 혁
☎(062)653-5565

고명주단
동구 학동 방림다리 미라노모텔 입구
고전한복맞춤(두루마기,남자옷,깨끼,파티복)
대표 임 인 숙
☎(062)227-4656

한국약손의명가
남구 봉선동 모아2차정문 4거리 앞
부분맛사지,일반맛사지,전신맛사지,스트레스
혈액순환, 피로회복, 만성두통, 고혈압치료
☎(062)655-2257

담양검도관
담양군 천변리 중앙파출소 4거리 2층
초,중,고,대,일반부 수련생수시모집(차량운행)
신입회원관장님1 : 1교육지도
☎(061)383-6222

수완창평국밥
광산구 수완지구 모아엘가와 신가초교중간
모듬국밥, 암뽕국밥, 순대국밥, 소머리국밥, 뼈해장국
단체손님 환영
☎(062)952-2589

인체공학연구소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과 신우@사이
좌골신경통, 오십견, 추간판, 요추디스크, 경추, 총민증, 각종신경계증상
대표 박 용 섭
☎(062)672-2706

좋은친구들
동구 대인동 소방서뒤 대인시장입구 7분마트 옆
커피,생과일쥬스,양주,맥주 각종주류일체
☎(062)228-3577

골든공인중개사
광상구 월계동 두산1차상가 105호
아파트,상가,토지,매매,임대 수시전문
대표 노 현 의
☎(062)261-0641

난과사랑
동구 소태동 지하철 3번출구 입구
한국춘란전문점
대표 조 동 락
☎(062)226-8330

카오시
동구 불로동 그랜드호텔 건너편 콜박스4거리
맞춤정장,코트,셔츠,예복 전문점
대표 김 경 욱
☎(062)226-5588

금강주유소
서구 쌍촌동영산강B/D옆
S-il 성실서비스
대표 진 승 원
☎(062)371-5165

동원식당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 응급실 앞
연회석완비 짱뚱어탕,추어탕,낙지전골볶음
대표 박 영 환
☎(062)672-0222

행복한주열
남구 월산동 신우@입구 남화주유소맞은편 2층
암,통증,만성피로,염증,냉증,무좀,비만 미프이식주열요법 무료체험
대표 김 정 인
☎(062)382-7044

하늘을날으는사람들
남구 서동 서현교회 맞은편
동력파라글라이딩스쿨 기업,개인항공 홍보및PR
항공축제및 행사이벤트 항공촬영
☎(062)672-5625

창신상사
광산구 신가동 육교 밑
여성,남성 성인용품 500여종 보유
☎(010)6533-3279

장수추어탕
북구 두암동 주공@2단지상가 2층
16년전통 추어탕+빈찬+공기밥 사무실,법원,학교등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대표 김 용 진
☎(062)264-8540

루치칸델라
광산구 월곡동 운남주공9단지입구 먹자골목내
병어찜,조기매운탕,피꼬막,곰장어,조개,굴,닭발,똥집전문
대표 이 혜 미
☎(062)954-4757